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

여 호 근*, 김 대 환**

초 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변수와 여가만족이 개인들의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여성여가 활성화에 필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여가참여 기회의 제고는 물론 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도출된 여가활동 유형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리고 여가참여로 인한 여가만족과 평소에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였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 및 여가만족이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 요인 중에서 여행 및 문화활동 요인이 여가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위락활동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여가만족과 교육에 대한 만족은 이들의 주관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평소에 생활방식이 가족 중심적일수록 주관적인 웰빙에 대해서는 부(-)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주관적인 웰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 가야대학교 국제관광학전공 조교수(경영학박사)

**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부 강사(경영학박사)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여가만족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밝혀졌으며, 평소에 여가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교육을 받은 정도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주관적인 웰빙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보다도 주관적인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주관적인 웰빙이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가시간에 대한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연구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 볼 때,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주관적인 웰빙의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여성,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

I. 서 론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조금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985년이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남성에 비해 25.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은 감소하게 되지만 이들 중 6,563천명(66.8%)이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고 있다(주재선·김성익, 2004). 기혼자이면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 노동액은 월평균 856,000~1,026,000원으로 평가(통계청, 2003a)되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하지만 기혼여성들의 대다수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절대다수의 시간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고 있으며, 가사노동에 대해서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규, 2003). 그러나 삶의 목표와 실천방식이 각기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2003년도 '결혼에 대한 이혼비'가 날로 증가하여 54.8%로 나타나고 있다(주재선·김성익, 2004).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이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핵심원인은 성격차이를 포함하여 가정불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순간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well-being)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쉽게 극복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지각하는 웰빙은 개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이들은 가사노동에 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활동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통계청, 2004). 흔히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사회활동 참여, 주관적 만족, 인구 사회학적 변인, 생활사건, 주변 환경, 성격 요인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있다(Mcpherson, 1990).

즉,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웰빙에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고 본다. 여가는 인간 표현의 한 형태이며, 인간으로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 자아만족, 잘삶에 대한 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조명환·정광현, 2002). Mehl(1980)은 웰빙은 사회 정책적인 목적이며 정신적 및 비실용적인 요소인데, 여기에서 정신적인 요소들로는 자유, 이동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인 자유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건강상태, 기능도, 정신건강, 건강증진, 가족기능, 생활만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노용균, 1998),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자기발전, 자아실현을 안겨주게 된다(Kelly, 1987). 여가의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재창조, 기분전환(Bagrit, 1965), 재능과 흥미의 발전,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 자각, 자아실현, 감성과 이성을 가지게 해주며(Dumazedier, 1967) 정신적인 회복(김광득, 1981)을 가능하게 한다. 즉, 여가활동 참여는 개인의 웰빙에 긍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가연구(Grazia, 1964, Samdahl, 1988)와 여가활동(Iso-Ahola et al, 1994)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으며, 웰빙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Conner et al., 1979, Duff & Hong, 1982, Gibson, 1986-87, Lee & Ellithorpe, 1982, Liang et al., 1980, O'Connor, 1995)과 가족관계(Minuchin, 1974; Bowen, 1976; Haley, 1976;

Olson, 1984; 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제석봉, 1989; 김순기·유영주, 2001), 지식과 교육(White, 2000), 청소년 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MaloneBeach, Degenova & Otani, 1998) 있을 뿐 가정의 행복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많은 사회문제들이 가정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정의 안녕과 화목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정의 안녕과 화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웰빙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웰빙의 주관적인 만족은 주관적 건강, 경제적 만족, 결혼 만족, 직업 만족으로 구성되고 있기(Mcpherson, 1990)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 활동자와 비경제 활동자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에 대하여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 중 건강만족, 경제만족, 교육만족, 배우자 유무(O'Bryant & Morgan, 1989)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즉, 도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 및 여가만족은 주관적인 웰빙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 및 여가만족이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여성들의 주관적인 웰빙 제고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활동 참여

관광과 여가의 개념은 다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문화·경제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심리적인 속성까지 고려해야(Mill & Morrison, 1985; 변우희, 1992)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가에 대한 개념을 시간적(Murphy, 1974, Brightbill, 1963), 제도적(Kalian, 1975), 활동적(Dumazedier, 1967), 상태적(Parker, 1981), 포괄적(Murphy, 1974)으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김광득, 1995)되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여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인접용어와의 관련성이 규명되고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른 여가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여가문제는 노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안식으로서의 여가였기 때문에 노동이 중요시되었고 여가를 즐긴다는 것 자체는 죄악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다(Pieper, 1965; 안재두, 1994).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이유와 노동 중심적인 생활문화의 특징으로 인해 여가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들은 향유할 수 없었으며, 일부 특권계층에 한정된 행위에 불과하였다(이상희, 1987; 김문겸, 1994). 그 이후 산업혁명기로 접어들면서 노동시간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노동자들의 가정생활 붕괴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과 신체 발육 부진,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Marx, 1967; 김영민(윝김), 1987; 김문겸, 1994)에 따라서 노동시간의 단축문제를 놓고 자본가와와의 극한투쟁 끝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의 여가는 산업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력회복을 위한 관점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松原治郎, 1986; 김문겸, 1994).

그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노동 및 생산중심의 가치관에서 여가 및 소비 중심의 생활양식으로 변모하여, 오늘날 여가시간의 증대는 개인적인 삶의 질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노동보다 오히려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도 일어나게 된다(손해식, 1997).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초창기에는 특권계층에 한정된 여가이었으며,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개인의 여가권 문제가 태동이 되었고, 그 이후 여가를 노동을 위한 재충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여가향유를 위한 노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을 겸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에 대한 여가연구는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Cluogh et al.(1989)은 복지적 여가, 사회적 여가, 도전적 여가, 지위추구 여가, 탐닉 여가, 건강추구 여가 등의 6가지로 분류의 시도를 하였고, Iso-Ahola(1980)는 스포츠 활동, 사교 활동, 공작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Yu & Berryman(1996)은 가정/실내 활동, 관람 활동, 예술 및 공예 활동, 취미 및 게임 활동, 스포츠 활동, 육외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현주·박시범(1993)은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야외 활동형, 문화적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사회적 활동형, 취미 활동형, 대중매체형, 창조적·예술추구형, 오락 추구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Ulrich & Dimberg (1990)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느끼게 함으로써 혈압조절 등과 같은 생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Ulrich & Dimberg(1990)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여가활동 참여는 개인의 심리와 생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손해식 외 6인(199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여가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란 “여성들이 평소에 여가활동 유형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측정을 하고자 한다.

<표 1>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여가활동의 분류
조명환·정광현 (2002)	취미형, 활동형, 감상형, 사교형, 오락형
Yu & Berryman (1996)	가정/실내 활동, 관람 활동, 예술 및 공예 활동, 취미 및 게임 활동, 스포츠 활동, 옥외 및 기타 활동
손해식 외6인 (1996)	교양문화활동, 모험적 활동, 감상·관람 활동, 관광·행락 활동, 스포츠 활동, 오락·사교 활동
문화체육부 (1995)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관광행락활동, 놀이 및 오락활동
신현주·박시범 (1993)	야외 활동형, 문화적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사회적 활동형, 취미 활동형, 대중매체형, 창조적·예술추구형, 오락 추구형
관광레저연구소 (1993)	행락·관광 활동, 사교 활동, 근린 활동, 감상·관람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유흥·오락 활동, 기타 활동
Cluogh et al. (1989)	복지적 여가, 사회적 여가, 도전적 여가, 지위추구 여가, 탐닉 여가, 건강추구 여가
일본여가센터 (1989)	스포츠 부문, 취미·창작 부문, 오락 부문, 관광·행락 부문
Iso-Ahola (1980)	스포츠 활동, 사교 활동, 공작 활동
Ragheb (1980)	대중매체형, 사회적 활동형, 야외 활동형, 스포츠 활동형, 문화 활동형, 취미 활동형

2. 여가만족

Beard & Ragheb(1980)은 여가만족을 심리적 만족도, 교육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기분전환 만족도, 생리적 만족도, 미적 만족도 등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오문환(1997)은 여가만족과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역시 동일하게 구성이 됨을 확인하였고,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기분전환 여가 만족도는 직무만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 여가활용 만족도 조사에서 남성들은 28.6%, 여성들

은 26.1%가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의 경우는 남성 71.4%, 여성들은 73.9%가 불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주재선·김성익, 2004). 이정순(2005)은 여가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ard & Reghab(1980)이 개발하고, 이종길(1992)이 번안한 여가만족 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박유진(2002)이 6개 문항의 간편형 질문지로 재구성한 것을 연구에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이란 ‘평소에 여가활동에 참가하고 난 이후에 느낀 전반적인 만족, 기분이 좋은 정도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고자 한다.

3. 주관적인 웰빙

웰빙은 주관적인 잘삶, 안녕(安寧), 복락(福樂)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용어로, 이에 대해서 Veenhoven(1991)은 이를 크게 두 가지 차원인 개인-집단수준, 주관성-객관성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웰빙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는 생의 전반에 걸쳐 느끼는 만족감과 특징적인 경험(결혼만족, 혹은 경제적 만족)의 만족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Diener, 1994; Myers & Diener, 1995).

웰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김규순(1991)은 노인의 웰빙 혹은 복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는 건강을 꼽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및 만족감, 심리 사회적 웰빙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Willis & Campbell, 1992; 최성애, 1997). 또한 Flanagan(1978)은 활동적 여가로서 스포츠 활동은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개인의 생활만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Ragheb & Griffith(1982)는 노인들의 경우 생활 만족도와 여가활동 유형별 정적인 상관정도가 사회활동, 스포츠활동, 야외 활동, 문화활동, 독서, TV시청, 취미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남을 보고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이나 신체적 활동 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h, Diener & Fujita, 1996; Zika & Chamberlain, 1987;

Headey & Wearing, 1989). 또한 웰빙의 관련요인들로는 주관적인 만족, 관련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스스로 지각하는 자기 건강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인 웰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O'bryant & Morgan, 1989). 연령 증가에 따라 객관적인 측정인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행복 정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Herzong et al., 1981).

하지만 노인의 주관적인 웰빙에 대해서 소득은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Keith, 1985), 교육수준은 개인의 웰빙에 그렇게 큰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arson, 1978; 장혜경·김영란, 2000, p4).

둘째, 이종영(1992)은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자긍심은 웰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iener, 1984). 최성애(1997)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건강만족, 용돈만족,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웰빙의 구성요인으로 정적(正的) 정서로는 즐거움, 열광, 확고, 신중, 열렬, 고무, 힘, 활기, 당당, 세심이 해당되며, 부적(否的) 정서로는 화, 괴로움, 창피, 혼란, 신경성, 무서움, 죄책감, 적의, 초조, 두려움 등이라고 보고 있다.

생활만족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과거생활 평가 6개, 현재 생활의 평가 8개, 미래생활의 평가 6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Watson, Clark & Tellegen(1988)에 의해서 개발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를 적용하고 있다. Yoo(1999)는 한국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자녀수와 성별에 따른 심리적인 웰빙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인 건강함, 아들의 수, 월평균 소득 등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Lee(2002)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웰빙에 관한 연구에서 웰빙과 지각된 통제, 생활만족, 압박감, 자아존경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생활만족, 자아존경, 압박감, 지각된 통제 등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낮아

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희봉(2001)은 웰빙은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김순기·유영주(2001)는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하여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nat & Lang (1990)이 제작한 웰빙 척도를 이희정(1994)이 번역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인 ‘지난 한달 동안’ 기분이 좋았는지, 흥미롭고 즐거운 활동을 했는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등의 9개의 질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였다. 이정순(2005, p87)은 심리적인 웰빙(46문항), 주관적 웰빙(25문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때 심리적인 웰빙은 Ryff(1989)와 김명소·김혜원(2000)의 척도를 도입하였고, 주관적 웰빙은 류연지(1996)의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웰빙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웰빙과 주관적인 웰빙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및 여가만족이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계로 종속변수인 주관적인 웰빙의 경우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5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주관적인 웰빙이란 ‘도시 여성들이 삶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안녕의 정도에 대한 기분’을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23문항, 여가만족 2문항, 주관적 웰빙 5문항을 리커트 5점(1점: 매우 부정, 3점: 보통, 5점: 매우 긍정) 척도로 설계하였으며,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사 1문항, 건강만족, 경제만족, 교육만족에 대하여 각각 1문항, 그리고

평소 삶의 방식에 대해서 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에 반영된 항목들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일부항목을 축소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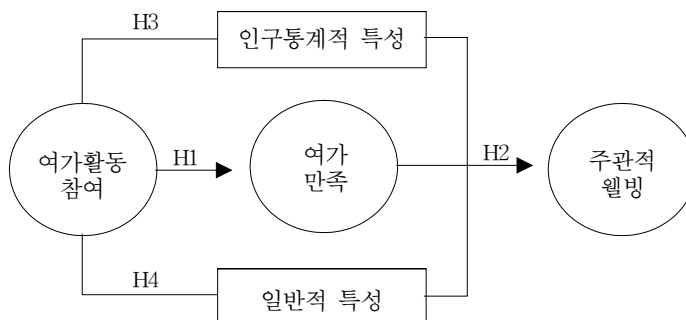
2.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산시민 중에서 여성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의 수집을 위하여 평일과 주말(휴일)로 구분하여 조사지역을 달리하였다. 먼저 평일에는 해운대 및 광안리 해변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주말(휴일)에는 어린이 대공원과 을숙도 광장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설문의 취지를 교육받은 조사원 2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모두 250부를 배포하여 23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 13부를 제외한 2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SPSS/WIN 10.0 통계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3.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여가관광활동은 여가관광만족에 대하여, 여가만족은 웰빙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이정순, 2005; 이정순·전원배, 2005; 윤영화, 2003; 송강영, 2001), 최성애(1997)는 스포츠 활동의 참여정도는 주관적 웰빙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종길(1992)은 스포츠 활동 참가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Andrew & Withey(1976)는 만족과 관련하여 정서적 웰빙의 안정적인 구성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가설1 : 여가활동 참여는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ivan & robertson(1996)은 교육, 사회활동 참여, 연령 등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와 현재의 역할과 신분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 기회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연령, 라이프 스타일, 성(性), 교육, 소득, 사회 계층, 기회, 지각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Torkildsen, 1992).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은 심리적인 웰빙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Flanagan, 1978),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도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Iso-Ahol, 1980), 이들의 연구를 검토한 이후 여가교육, 사회규범, 가족구조, 기술, 환경, 건강수준,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여가만족과 웰빙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Leitner, Leitner & Associates, 1996).

가설2: 인구 통계적 특성, 일반적 특성, 여가만족 등은 주관적인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4: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IV. 실증분석

1. 인구 통계적 및 일반적 특성

인구 통계적 및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항목별로 높은 빈도는 20대 88명(40.6%), 대학재-졸업 73명(33.6%), 전업주부 66명(30.4%)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 통계적 및 일반적 특성 분포

구 분			빈도 (명)	비율 (%)	구 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20대		88	40.6	결혼 미혼			103	47.5
	30대		87	40.1	여부 기혼			114	52.5
	40대		25	11.5	경제활동	있	다	116	53.5
	50대 이상		17	7.8	참가	없	다	101	46.5
학력	중 졸 이 하	5	2.3	생활 방식	사 회 지 향 형			33	15.2
	고 졸	65	30.0		가 족 중 심 형			100	46.1
	전문대재-졸업	69	31.8		자 기 중 심 형			84	38.7
	대 학 재-졸업	73	33.6	건강 만족	매 우 부 정			3	1.4
	대학원재-졸업	5	2.3		부 정			19	8.8
직업	학 생	33	15.2	건강 만족	보 통			112	51.6
	공 무 원	6	2.8		긍 정			80	36.9
	회 사 원	29	13.4		매 우 긍 정			3	1.4
	상 업	6	2.8	경제 만족	매 우 부 정			15	6.9
	교 직	24	11.1		부 정			27	12.4
	전 문 직	37	17.1		보 통			109	50.2
	전 업 주 부	66	30.4		긍 정			60	27.6
	판 매 서 비 스	11	5.1		매 우 긍 정			6	2.8
	기 타	5	2.3		매 우 부 정			3	1.4
여가 활동 지속 참여 의사	전 히 없 다	5	2.3	교육 만족	부 정			9	4.1
	없 다	5	2.3		보 통			152	70.0
	보 통	56	25.8		긍 정			50	23.0
	있 다	74	34.1		매 우 긍 정			3	1.4
	매 우 있 다	77	35.5						

2.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산광역시 거주 여성들의 경우에 평소 즐겨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정도는 TV 시청이 리커트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보통 이상의 참여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사색, 외식 및 음주, 영화 관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측 정 변 수 명				평균	표준 편차	측 정 변 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V	시	청	3.51	1.15	문	화	유	적	지	답	사
사			색	3.39	1.32	배	드	민	턴			
외	식	및	음	3.19	1.32	동	·	식	물	원	방	문
영	화		관	3.13	1.26	연	극			관	람	
여			행	2.88	1.44	스		퀴		시		
휴	양	지	방	2.77	1.46	볼				링		
공	원	에	서	2.69	1.40	민	속	행	사	관	람	
라	디	오	청	2.52	1.36	테		니		스		
드	라	이	브	2.41	1.53	자	연	학	습	프	로	그
											램	참
박	물	관/	전	2.30	1.52	스	포	츠		관	람	
			관									
교	양	강	좌	2.28	1.67	농	어	촌	지	역	방	문
수	공	예	품	2.21	1.67	(n	=	2	1	7)

주 : 리커트 5점 척도(1점: 부정, 3점: 보통, 5점: 긍정)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먼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베리맥스(Varimax)법에 의한 직각회전으로 분석한 결과, KMO측도 0.852(p=.000)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모두 6개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적재량은 0.4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별요인의 신뢰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 계수는 0.6232~0.8963에 해당되어 일부 요인이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분석에 적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변수들은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

르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만을 한정된 결과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도출된 변수들을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요인명은 ‘여행 및 문화활동, 위락활동, 스포츠 활동, 정서적 활동, 창작활동, 오락활동’으로 명명을 하였다(<표 3>참조).

<표 3>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누적 분산율	신뢰도 계수
여행 및 문화활동	여행	.885	7.905	34.369	.8963
	휴양지	.867			
	드림방문	.795			
	외식 및 음식주	.632			
	영화강좌	.608			
	교양관람	.593			
	연극관람	.591			
	박물관 및 전시관	.567			
	라디오 청취	.465			
	스포츠	.456			
위락활동	자연학습 프로그램 참가	.809	2.319	44.450	.8160
	동·식물원 방문	.800			
	민속행사 관람	.726			
	문화유적지 답사	.690			
	농어촌지역 방문	.603			
	공원에서 휴식하기	.490			
스포츠활동	테니스	.823	1.526	51.087	.6423
	배드민턴	.684			
		.491			
정서적 활동	사 T V 시 색	.746	1.208	56.340	.6232
		.666			
창작 활동	수공예품 만들기	.759	1.081	61.041	-
오락 활동	스포츠 관람	.730	1.042	65.571	-

다음으로 여가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공변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요인분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2변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이 되어졌으며, KMO측도 0.798(p=.000)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만족의 경우 신뢰도는 0.9011, 주관적

웰빙의 경우는 0.9382로 도출되어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구성된 요인들은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과 요인 적재량도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었다(<표 4>참조).

<표 4> 여가만족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명	변 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누적 분산율	신뢰도 계수
주관적 웰빙	삶의 즐거움을 느낌	.883	4.733	67.619	.9382
	신나는 기분을 느낌	.882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	.872			
	낙관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	.848			
	삶에 만족을 느낌	.830			
여가만족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921	2.734	83.871	.9011
	참여 이후 기분이 좋음	.918			

4. 가설의 검증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별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행 및 문화활동 요인만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행, 휴양지 방문, 외식 및 음주, 영화관람, 요양강좌 수강, 연극관람, 박물관 및 전시관 관람, 라디오 청취, 스쿼시 등의 활동 참여를 통해서 이들의 여가만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요인명	회귀계수	표준편차	β	공차한계	VIF
여행 및 문화 활동		.184**	.057	.213	1.000	1.000
	상수=3.682	R2=.045	수정R2=.041	F변화량=10.212**		

**p<0.01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은 ‘여행 및 문화 활동’ 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여가활동 참여 요인과 여가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의 ‘여행 및 문화 활동’ 요인과 여가만족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행 및 문화 활동’ 참여가 여가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LAP1	LAP2	LAP3	LAP4	LAP5	LAP6	LS
LAP1	1.00						
LAP2	0.51**	1.00					
LAP3	0.48**	0.37**	1.00				
LAP4	0.47**	0.28**	0.36**	1.00			
LAP5	0.49**	0.29**	0.41**	0.27**	1.00		
LAP6	0.27**	0.33**	0.36**	0.26**	0.35**	1.00	
LS	0.21**	-0.002	0.12	0.11	0.11	0.04	1.00
평균	2.48	1.72	1.55	3.45	2.21	1.34	4.15
표준편차	1.02	0.81	0.87	1.02	1.67	0.79	0.88

참고: LAP1(여행/문화활동), LAP2(위락활동), LAP3(스포츠활동), LAP4(정서적 활동), LAP5(창작활동), LAP6(오락활동), LS(여가만족), **p<0.01임.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여가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범주형 자료를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인구 통계적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여가만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고 주관적인 웰빙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력, 결혼여부, 직업, 현재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 참여의향, 건강만족, 경제 만족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변수 중에서 여가만족은 여성들의 주관적인 웰빙에 대하여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

육만족 정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수록 주관적인 웰빙은 정(+)의 관계로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생활방식이 가족 중심형일수록 주관적인 웰빙에 대해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2는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었다.

<표 7> 인구통계적(일반적)특성, 여가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요인명	회귀계수	표준편차	β	공차한계	VIF
여가만족	.494**	.054	.513	.981	1.019
교육만족 정도	.311**	.082	.211	.976	1.025
가족중심형 사고	-.262**	.095	-.154	.978	1.023
경제활동 참가	.214*	.095	.126	.969	1.032
상수=.496 R2=.370 수정R2=.358 F변화량=30.441**					

*p<0.05, **p<0.0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1차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후검증(Scheffe)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에 대한 사후검증에서 위락활동 요인은 50대 이상이 40대보다 많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창작활동 요인에서는 20대가 50대 이상보다도 이 요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행 및 문화활동 요인에 대해서 전문대재-졸업자가 대학재 및 졸업자보다 이 요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행 및 문화요인에 대해서 회사원, 상업직에 종사자들이 교직 종사자보다도 이 요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표 8>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구 분	여행/ 문화	위락	스포츠	정서적	창작	오락	사후검증 Scheffe
연령	20-29세(n=88)a	2.48	1.74	1.58	3.49	2.65	1.49
	30-39세(n=87)b	2.52	1.73	1.67	3.51	1.99	1.34
	40-49세(n=25)c	2.04	1.32	1.16	3.04	1.60	1.00
	50-59세(n=17)d	2.91	2.16	1.37	3.53	1.94	1.00
	F값	2.648*	3.870*	2.480	1.550	3.957**	3.723*
학력	중졸(n=5)a	2.74	1.97	1.80	3.60	1.80	1.00
	고졸(n=65)b	2.56	1.60	1.37	3.33	1.97	1.12
	전문대재-졸(n=69)c	2.69	1.95	1.70	3.70	2.59	1.49
	대학재-졸(n=73)d	2.14	1.57	1.54	3.29	2.11	1.42
	대학원 이상(n=5)e	3.30	1.93	1.60	3.80	1.80	1.00
	F값	3.933**	2.671*	1.281	1.845	1.487	2.585*
결혼	미혼(n=103)a	2.44	1.75	1.62	3.50	2.35	1.47
	기혼(n=114)b	2.52	1.69	1.48	3.41	2.08	1.22
	t값	-.538	.553	1.169	.663	1.196	2.306*
직업	학생(n=33)a	2.98	1.85	1.87	3.61	3.12	1.61
	공무원(n=6)b	2.43	1.78	1.11	3.83	1.00	1.00
	회사원(n=29)c	2.59	1.71	1.91	3.74	2.03	1.31
	상업(n=6)d	3.02	1.61	1.61	4.00	1.50	2.00
	교직(n=24)e	2.68	1.91	1.40	3.31	2.92	1.08
	전문직(n=37)f	2.20	1.55	1.49	3.47	2.19	1.38
	주부(n=66)g	2.41	1.74	1.47	3.25	1.09	1.09
	판매서비스(n=11)h	1.40	1.20	1.00	3.23	1.09	1.09
	기타(n=5)i	2.48	2.10	1.20	3.30	1.40	1.40
	F값	3.582**	1.234	2.272*	1.174	3.552**	1.658

* p<0.05,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후검증(Scheffe)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현재 즐겨 참가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보통 및 긍정’은 ‘매우 긍정’보다도 여행 및 문화활동 요인을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구 분		여행/ 문화	위락	스포츠	정서적	창작	오락	사후검증 Scheffe
지 속 참 여	매우부정(n=5)a	1.80	1.50	1.00	3.40	1.80	1.80	여행/문화: c, d>e
	부정(n=5)b	2.66	2.33	1.53	4.00	1.00	2.20	
	보통(n=56)c	2.72	1.77	1.71	3.59	2.20	1.32	
	긍정(n=74)d	2.71	1.87	1.55	3.49	2.50	1.19	
	매우긍정(n=77)e	2.12	1.51	1.46	3.27	2.04	1.40	
F값		5.026**	2.979*	1.146	1.557	1.513	2.762*	
생 활 방 식	사회지향형(n=33)a	2.91	2.04	1.92	3.38	2.64	1.52	여행/문화: a>c 스포츠: a>b
	가족지향형(n=100)b	2.45	1.67	1.40	3.44	1.87	1.24	
	자기중심형(n=84)c	2.35	1.65	1.58	3.49	2.44	1.38	
	F값	3.803*	3.151*	4.691*	.162	4.079*	1.713	
건 강 만 족	매우부정(n=3)a	2.87	2.28	1.56	4.33	1.67	1.33	정서적: b>d
	부정(n=19)b	2.92	2.10	1.68	4.24	2.42	1.21	
	보통(n=112)c	2.55	1.68	1.60	3.48	2.29	1.29	
	긍정(n=80)d	2.29	1.68	1.45	3.21	2.07	1.42	
	매우긍정(n=3)e	1.93	1.28	1.22	2.83	1.67	1.33	
F값		2.025*	1.759	.581	5.129*	.435	.440	
경 제 만 족	매우부정(n=15)a	3.02	1.90	1.98	4.27	3.53	1.53	여행/문화: e>b,c,d 스포츠:e>b,c,d 정서적:a>c,d 창작:a,e>c,d 오락:b,e>c,d
	부정(n=27)b	2.71	1.89	1.67	3.83	2.52	1.89	
	보통(n=109)c	2.28	1.57	1.45	3.29	1.96	1.66	
	긍정(n=60)d	2.44	1.81	1.42	3.30	1.97	1.25	
	매우긍정(n=6)e	4.15	2.33	3.00	4.17	4.33	2.33	
F값		7.199**	2.620*	6.407**	5.515**	6.563**	8.278**	
교 육 만 족	매우부정(n=3)a	2.03	1.61	1.44	3.67	2.33	1.00	여행/문화: e>a,c,d 위락:e>a,b,c,d 스포츠:e>c,d 정서적:b>d 오락:e>a,c,d
	부정(n=9)b	3.28	1.50	1.93	4.33	1.89	1.44	
	보통(n=152)c	2.50	1.71	1.57	3.51	2.32	1.34	
	긍정(n=50)d	2.19	1.64	1.32	3.04	1.84	1.22	
	매우긍정(n=3)e	4.70	4.22	3.22	4.67	3.67	3.00	
F값		6.763**	8.573**	4.299**	5.305**	1.442	3.935**	

* p<0.05, **p<0.01

둘째, 생활방식에 따른 차이에서는 사회 지향형이 자기 중심형보다도 여행 및 문화활동 요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스포츠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 지향형이 가족 지향형보다 높게 반응을 보였다.

셋째, 건강만족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정’ 응답자들이 ‘긍정’ 응답자들보다도 정서적인 활동에 대해서 높게 반응을 하였다. 경제만족, 교육 만족 등에 따른 차이에서도 사후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표 9>와 같다.

V. 결 론

최근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참가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경제활동 참가자의 경우 시간적으로는 전업주부에 비해서 여가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여유가 생기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많이 획득함으로써 인해 오히려 전업주부보다도 여가활동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 여가만족을 느끼게 됨은 물론 개인들의 주관적인 웰빙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가 있다. 즉, 이러한 관점은 Bitman & Wajcman's(2000); Marybeth & Bianchi(2003)에 의해서 제시된바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양적으로는 자유시간이 남성들보다 많지만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부족하며, 그 결과로 인해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남성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최유진(1996)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여대생들은 가용 여가시간 중에서 긍정적인 내적 심리상태(자유도, 내면도, 기량도)를 느끼는 것은 전체 시간 중에서 약 10.8%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정숙(1996)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시사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여행 및 문화 활동’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

성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여가활동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여가만족은 단순히 여가활동 참여행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여가만족 변수와 주관적 웰빙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가만족과 주관적 웰빙은 다른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졌다.

셋째,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여가만족 등의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여성들의 주관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이 주관적인 웰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강한 인자임이 밝혀졌는데, 선행연구(Andrew & Withey, 1976; 이종길, 1992; 이정순, 2005; 이정순·전원배, 2005)와 동일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넷째, 여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는 주관적인 웰빙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Torkildsen(1992), Leitner, Leitner & Associates(1996)와 일치되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

다섯째, 경제활동에 참가할수록 주관적인 웰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유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여가가 질적이지 않다는 선행연구인 Bittman & Wajcman's(2000); Marybeth & Bianchi(2003) 등의 연구와 같이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많다는 문제가 반드시 여가만족 혹은 주관적인 웰빙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일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TV 시청과 사색, 외식 및 음주, 영화 관람 등에 대한 참여가 높게 응답되고 있음 볼 때,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하거나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거주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여가센터 등이 설치되어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영향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성들의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서는 극히 한정된 '여행 및 문화 활동' 요인만이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여

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령별, 직업별, 향후 여가활동 참여의사, 평소 생활방식, 건강에 대한 만족정도, 경제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등에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듯이 사회구조적인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부산광역시의 인구를 비례표본 추출법에 의하여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여성들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수, 가족형태, 부부간의 가사비율, 양육 부담, 노인 부양 등에 관한 항목들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강남국(1999). 여가사회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강현두(1987).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나남.
- 김광득(1981). 현대여가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규순(1991). 서울 시내 일부 지역 노인의 건강 및 관련요소에 대한 실태 조사. 인간과학, 제15권 제9호, p.30.
- 김명소·김혜연(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5권 제1호, p.27-41.
- 김문겸(1994). 산업사회에서의 여가연구와 여가관 변천. 관광·레저,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창간호, pp.41-63.
- 김순기·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제1호, pp.43-64.
- 김희봉(2001). 지식, 잘삶, 그리고 교육: 화이트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26호, pp.99-118.
- 노용균(1998). 삶의 질 측정 도구. 가정의학회지, 제19권 제11호, pp.1043-1050.
- 관광레저연구소(1993). 부산시민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아태관광연구소.
-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재규(2003).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64호, pp.1-32.
- 박유진(2002). 여가경험과 여가정체성 현출성이 여가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변우희(1992). 수도권 관광·여가산업의 발전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손해식(1997). 현대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관광레저, 제2호, pp.7-23.
- 손해식 외 6인(1996). 부산시민의 여가유형별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1호, pp.9-23.
- 송강영(2001).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빈도와 여가만족의 관계. 동서논문집, 제21권 제12호, 동서대학교, pp.495-510.
- 신현주·박시범(1993). 라이프스타일과 레저활동유형간의 상관성 연구. 관광학연구, 제17호, p.36.
- 안재두(1994). 창세기에 나타난 노동과 여가.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관광레저, 창간호, pp.29-39.
- 여성개발연구원(2003). 2003 여성통계연보.
- 오문환(1997). 여가만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9권 제1호, pp.135-143.
- 윤영화(2003). 여성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정숙(1996).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7권 제1호, pp.51-67.
- 이정순(2005). 관광활동, 관광·여가만족, 웰빙지각의 관계. 관광연구, 제19권 제3호, pp.75-99.
- 이정순·전원배(2005). 관광활동,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 주관적 웰빙의 관계. 관광학연구, 제28권 제4호, pp.149-172.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종영(1992). 스포츠와 삶의 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세미나 자료집.
-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59호(요약집). pp.1-12.
- 조명환·정광현(2002). 여가기능 인식이 여가활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4권 제2호, pp.9-23.
- 주재선·김성익(2003).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최성애(1997). 노인의 레저 스포츠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박사학

위논문 경기대학교.

최유진(1996). 여대생의 시간활용 및 여가경험의 내적 심리상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계청(2003a).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1989, 1994, 2001-2004). 인구동태통계연보.

Mehl, L.(1980). 福樂(Well-being): 社會科學的 개념과 社會政策的 목적.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23-39.

Andrews, F. M. and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Bagrit, L.(1965). *The Age of Automati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Beard, J. G. and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2, No.1, pp.20-33.

Bitman, M. and wajcman, J.(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ender*, *Social Forces*, Vol.79, No.1, pp. 165-189.

Brightbill, C. K.(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Cluogh, P., Shephed, J. and Maughan, R.(1989).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runn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1, No.4, pp.297-309.

Conner, K. A., Powers, E. A. and Bultena, G. L.(1979).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 empirical assessment of later-life patter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pp.116-121.

Diener, E.(1984). *Subjective welling-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pp.542-575.

Duff, R. W. and Hong, L. K.(1982). *Quality and quantity of social interaction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merican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66, pp.418-434.

Dumazedier, J.(1981).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Y: The Free Press.

Flanagan J. C.(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 American Psychology*, Vol.33, pp.138-147.
- Gibson, D. M.(1986-1987). *Interaction and well-being in old age: Is it quantity or quality that cou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4, pp.29-40.
- Grazia, D. S.(1964).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Doubledy & Co., Inc.
- Headeym B. and Wearing, A.(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4, pp.732-737.
- Herzong, A. R. and Rogers, W. L.(1981). *Age and satisfaction: Data from large surveys*, *Research on Aging*, Vol.3, pp.142-165.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LA: Wm. Brown Company.
- Iso-Ahola, S. E., Jackson, E. and Dunn, E.(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6, No.3, p.234.
- Kaplan, M.(1975). *Leisure: Theory and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Keith, P. M.(1979). *Life change and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among older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pp. 870-878.
- Kelly, J. H.(1987). *Possessing leisure*, *WLRA*, Fall, p.14.
-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 being of or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3, pp. 109-125.
- Lee, G. R. and Eugene Ellithorpe, E.(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4, pp.217-224.
- Lee, H. J.(2002).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7, pp.71-82.
- Leitner, M. J., Leitner, S. F. and Associates(1996). *Leisure enhancement*.

- NY·London: The Haworth Press.
- Liang, J., Dvorkin, L., Kahana, E. and Mazian, F.(1980). *Social intergration and morale: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5, pp. 746-757.
- MaloneBeach, E. E., Degenova, M. K. and Otani, H.(1998). *Conflict, well-being, and depression: Young adults in intergenerational caregiving and noncaregiving famil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7, pp.5-16.
- Marybeth, J. M. and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vol.81, No.3, pp.999-1030.
- Mcperson, B. D.(1991).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r life*. Waterloo : Canada.
- Murphy, J. F.(1974). *Concept of leisure: Philosophical implic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Myers, D. G. and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pp.10-19.
- O'Bryant, S. L. and Morgan, L. A.(1989). *Financial experience and well-being among mature widowed woman*, *The Gerontologist*, Vol.29, pp.245-251.
- O'Connor, B. P.(1995). *Family and friend relationship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Interaction motivation, mood and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40, pp.9-29.
- Parker, S.(1981). *The sociology of leisure*. NY: In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
- Ragheb, M. G. and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 pers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4, pp. 295-306.
- Ryff, C. D. and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pp.549-559.
- Samdahl, D.(1988). *A symbolic interactionist model of leisure: Theory and empirical support*, *Leisure Science*, Vol.10, No.1, pp.27-39.
- Sivan, A. and Robertson, R. W.(1996). *Women and leisure in Hong Kong*. In Samuel, N. (ed.), *Women, leisur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a Multinational perspective* (1996, pp. 271-286). Wallingford: Cab international.
- Suh, E. K. and Diener, E.(1995). *Subjective well-being, Issues for Cross-Cultural Research*. 1995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Torkildsen, G.(1992).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London: e & fn Spon.
- Ulrich R. S. and Dimberg, U.(1990). *Psycho-physiological indicators of leisure consequ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2, No.1, pp.154-166.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24, pp. 1-34.
- White, J.(2000). *The value of education: A reply to andrew reid*,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34, No.4, pp.697-707.
- Yoo, S. H.(1999). *The effect of gender and number of adult childre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1, No.1, pp.133-142.
- Yu P. and Berryman, D. L.(199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and recreation participation of recently arrived chines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8, No.4, p.262.
- Zika, H. and Chamberlain, K.(1987). *Relation of hassles and personality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 pp.155-16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 Focused on the Residen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

Hokeun, Yeo* · Daehwan, Ki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living for women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A total of 217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from residents in Busan.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analysis, t-test, ANOVA, multi-regression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ticipants in leisure activities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gave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also the t-test or analysis of variance for hypothesis 3~6, required level of leisure activity's participant and subjective well-being by characterical of demographic and characterical of generalizer.

In conclusion, the study proved that subjective well-being was be improved when women positively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a central(local) government should try to develop leisure programs, facilities, plans and policies.

Keywords: woman, leisure activity participant, leisure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 Major of International Tourism, Kay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Ph.D.)

** Division of International Tourism, Dong-A University, Lecture(Ph.D.)